

# 배우 조재윤 “진정한 신스틸러답게”...오래 가는 자가 강하다

‘SKY 캐슬’ 대박 난 후, 드라마·영화·예능 등 넘나들며 활약 펼쳐 언젠가 기회가 오면 주인공 맡겠지만, 아직 “책임질 그릇 못 된다”

배우 조재윤(48)은 진정한 ‘신스틸러’를 꿈꿨다. ‘SKY 캐슬’(2018-2019)이 대박 난 후 드라마·영화·예능 등을 넘나들며 활약했는데, 주연을 꿈꾸며 연기하진 않았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주인공을 맡겠지만, 아직 “책임질 그릇이 못 된다”며 겸손해 했다. 어느 순간 소모되는 느낌이 커 “이제 질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화 ‘짜페’(감독 류승완·2006)의 이범수(54) 대사를 가장 좋아한다며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어찌 매니저한테 배우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너무 달려와서 대사에 차이는 것 같았다. 인물을 분석하고 좀 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 놀아야 하는데, 매일 찍기 급급해 깊이가 얕아졌다. 이렇게 하면 ‘사라지겠구나’ 싶더라. 늘상 있는 조연배우가 아니라, 각 드라마에서 캐릭터로 보여주는 게 ‘신스틸러’ 아니냐. 정작 난 부족해 스스로 신스틸러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이제 조금 더 신스틸러답게 임팩트를 주고 빠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tvN 드라마 ‘환혼’ 파트1·2를 비롯해 영화 ‘한산:용의 출현’(감독 김한민) ‘영웅’(감독 윤제균), KBS 2TV ‘세컨 하우스’ 등에 얼굴을 내비쳤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작품까지 포함하면 7개를 찍었다. 이중 환혼은 1년 가까이 촬영해 애정이 남다르다. “지난해 행복하게 찍었다”면서 “박준화 PD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다. 박 PD는 리더십이 강하고 유쾌하다.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짜증을 안 낸다. 배우 가지고 있는 걸 잘 꼬집어 내줘서 화수분 같은 분”이라며 고마워했다.

이 드라마는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이들의 이야기다. 조재윤은 천부관 관주 ‘진부’를 맡았다. 진요원장 ‘진호경’(박은혜) 이복동생이다. 아육이 크고

‘박쥐’ 같은 인물인데, “악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털어놨다. “진부는 목적이 분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서자로서 천대 받고 무시당하지 않았느냐. 트라우마와 외로움을 극복하고, 철저하게 성공하고 싶었다”며 “대호국의 계급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았지만, ‘장강’(주상욱)을 만나 환혼술을 배웠다. 장강이 사라지니 숨겨 놓은 발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애초 시놉시스에서 진부와 ‘박진’(유준상), ‘김도주’(오나라)는 러브라인을 형성했다. “셋이 삼각관계였는데 바뀌었다. 다 사랑 이야기라서 누군가 적이 있어야 했다. 정·반이 있어야 힘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진부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 변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 받고 싶은 결핍이 없었다면 그냥 나쁜 놈이 됐을 것 같다. 그런 결핍이 있어서 진부를 사랑했다”고 설명했다.

“시즌1 때는 백발이 지 않았느냐. 길거리 다닐 때도 알아보고 ‘왜 그렇게 ‘무척이’(정소민)를 괴롭혀~’라고 하더라. 일일드라마도 아닌데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통 퓨전사극은 젊은 사람 이야기 위주로 흘러가는데, 환혼은 중년층까지 잘 쉬었고, 권력과 사랑, 희로애락이 조화를 이뤘다. 시청률이 확 오르지 않았지만, 마니아층이 형성됐고 진부도 덩달아 사랑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환혼은 사극에 판타지, 로맨스를 섞은 복합 장르물이다. 대호국이라는 가상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다. 톤이 제각각이었지만, 조재윤은 유준상(54), 오나라(49) 등과 함께 중심을 잡아줬다. ‘조선구마사’(2021) ‘설강화’(2021~2022) 등이 역사 왜곡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만큼 “처음에 다들 ‘괜찮은 건가, 큰일 나는데 아닌가?’ 걱정했다”고 귀띔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가상 세계를 설정하지 않았느냐. 가족이나 중국에

민감한데 ‘따라한 거 아니냐’고 할까 봐 걱정했다”며 “진조연(아린) 의상이 기생옷과 비슷했는데, 조선시대 유행한 옷이다. 중국 무협 드라마처럼 하지 않고, 잘 풀어서 다행”이라고 질었다.

“말투가 제일 문제였다. 요즘 사극은 현대말을 써도 무방하지 않느냐. 진부는 현대말에 사극 말투를 조금 가미했다. 구어체는 현대말이고, 문어체는 사극투 아니냐. 2개를 접목했다. 극중 박은혜씨가 가장 전통적인 사극말을 했다. 무엇보다 발음과 억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배우로서 가장 기본인데, 선천적으로 허가 짧다.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리고,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 올해는 조금 더 정비해야 할 것 같다.”

극 말미 진부는 ‘서울’(황민현) 당숙인 ‘서윤오’(도상우)로 환혼했다.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결국 ‘장욱’(이재욱) 손에 죽음을 맞았다. 불에 타 죽어가며 “장욱 네 말이 맞구나.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세상에서 약한 자는 그냥 죽는 거구나”라고 한 대사로 인상적이었다. “갑자기 그 대사가 슬프더라. 내 인생이 훑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첫 테이크 때 너무 울어서 한번 더 찍었다. 그때처럼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조연으로서 사랑 받는 역할 때 인정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진부의 마지막 대사가 힘들게 살아온 나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보통 조연은 죽을 때 그냥 사라지고 주인공만 남는데, 아름답게 이별을 준비해줘서 감사하다.”

조재윤은 올해 숨 고르기를 하면서도 열심히 달릴 예정이다. SBS TV 드라마 ‘7인의 탈출’과 웹툰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으로 시청자와 만날 계획이다. “만능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싶다”며 “연기도 잘하고 예능감이 뛰어난지 모르지만 엔터테이너가 돼 가족



들이 봤을 때 ‘멋있다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절친한 후배 변요한(37)이 영웅을 보고 “너무 실랑실랑한 거 아니냐”고 했으며 “극중 캐릭터가 말 많고 눈물도 많고 행복하면서도 절했다. ‘안 되겠다. 깊이에 맞게 접근해야 겠구나’라고 반성했다”고 털어놨다.

조재윤은 스케줄이 바빠도 드라마·영화 등을 빠지지 않고 찾아보는 편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애플TV+, 왓차, 티빙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모두 구독한다며 “결국 나의 소스이자 교재다.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걸 간접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개그 프로그램도 안 빼놓고 본다. 환혼에서 패러디한 것도 많다”고 했다.

“50대에는 손현주 형처럼 하고 싶다. 현 주 형이 ‘추적자’ ‘모범형사’ 등에서 정의롭고 따뜻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세상의 약자지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주연은 욕심 없어도 조연으로서, 한 번은 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뛰고 있다. (오)정세가 한 ‘영클’처럼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위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고 싶다.”

## 있지 ‘체셔’ 뮤비 1억뷰...활동곡 모두 ‘억대뷰’



그들 ‘있지(ITZY)’의 히트곡 ‘체셔(CHESHIR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 뷰를 달성했다. 16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있지가 작년 11월30일 공개한 미니 6집 ‘체셔

(CHESHIRE)’의 동명 타이틀곡 ‘체셔’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12시58분경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있지는 데뷔곡 ‘달라달라’부터 ‘아이씨(ICY)’, ‘워너비(WANNABE)’, ‘낫 샤이(Not Shy)’, ‘따.피.아. 인 더 모닝(In the morning)’, ‘로코(LOCO)’, ‘스니커즈(SNEAKERS)’ 그리고 이번 ‘체셔’까지 총 8편의 모든 활동곡 뮤비들 역대 부 반열에 올랐다.

‘체셔’ 뮤직비디오는 ‘퀴즈 쇼’ 콘셉트로 기획됐다. 시시각각 변하는 멤버들의 표정 연기가 시선을 모은다. 눈물도 변진 아이 메이크업과 롱 네일아트 등 화려한 스타일링이 인기였다.

2019년 데뷔한 있지는 3.5세대 또는 4세대 K팝 걸그룹의 포문을 연 팀으로 평가 받는다. 4세대 걸그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데뷔 때부터 완성형이라는 점이다.

‘체셔’와 이 앨범에 앞서 작년 7월에 발매한 미니 5집 ‘체크메이트(CHECKMATE)’가 써클 차트(옛 가온차트) 기준 각각 누적 출고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 두 음반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체셔’와 ‘체크메이트’는 ‘빌보드200’에서 각각 25위와 8위를 차지했다.

## ‘파친코’, 美 크리틱스초이스 수상...4년 연속 쾌거



김민하 주연 애플TV+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박은빈 주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함께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 후

### 기생충·미나리·오징어 이어 영예

보에 올랐으며, 파친코가 이 상을 차지했다.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2020)과 ‘미나리’(감독 정이삭·2021),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2)에 이어 4년 연속 쾌거다.

파친코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페어몬트 센츄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수상 영광을 안았다. 우영우를 비롯해 넷플릭스 ‘1899’ ‘여종리 비르기트’ ‘클레오’(독일), HBO 맥스 ‘가르시아’(스페인), HBO ‘나의 눈부신 친구’(이탈리아), 무비 ‘더 킹덤 엑스터스’(덴마크), 애플TV+ ‘테헤란’(이스라엘)과 경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주연인 김민하와 진하가 참석했다.

파친코는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이 2017년 내놓은 동명 장편소설이 원작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간 ‘순자’와 가족 이야기를 그렸다. 윤여정은 나이 든 순자를 맡았고, 이민호는 그와 사랑에 빠진 ‘한수’를 연기했다. 김민하는 젊은 시절

순자, 진하는 선자 손자 ‘솔로몬’으로 분했다. 지난해 3월 공개했으며, 시즌2 제작을 확정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3회 고담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캐나다 방송·영화 비평가들이 작품성과 연기력을 평가해 주는 상이다. 파친코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미나리에 이어 수상, K-콘텐츠 힘을 보여줬다. 기생충은 외국어영화상과 감독상을 받았고, 오징어 게임은 외국어드라마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차지했다. 미나리는 외국어영화상과 아역배우상(엘런 김)을 안았다.

이날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받지 못했다. 이 상은 인도 영화 ‘RRR:라이즈 로어 리볼트’에게 돌아갔다. 이 외 ‘사부 전선 이상 없다’(독일)와 ‘아르헨티나, 1985’(아르헨티나),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멕시코), ‘클로즈’(벨기에) 등과 경쟁했다. 헤어질 결심은 10일 열린 제80회 미국 골든글로브에선 비영어 영화 작품상에 이어 수상에 실패했다.

## 라붐 해인, 알앤디컴퍼니와 동행

그들 ‘라붐(LABOUM)’ 멤버 해인이 알앤디컴퍼니와 새 출발한다.

소속사 알앤디컴퍼니는 16일 “해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은 2014년 라붐으로 데뷔했다. ‘두근두근’, ‘키스키스(Kiss Kiss)’, ‘상상더하기’ 등 다수의 앨범을 발표했다.



## SBS TV 새 금토드라마, 다음 달 17일 첫 방송

‘모범택시2’ 이제훈이 충격적인 근황을 공개했다.

SBS TV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하는 이야기.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스틸컷에는 김도기가 감옥 독방에 수감 중인 근황이 담겼다. 덩수룩하게 자란 장발머리를 한 채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아우라가 풍긴다.

무엇보다 그는 독방 안에서 홀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선명한 근육과 힘줄에서 야성미가 폭발한다.

제작진은 “이제훈이 ‘모범택시’ 시리즈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기부터 비주얼 구현에 이르기까지 시즌1을 뛰어넘는 완성도와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열정이 엄중하다”며 “한층 타격감이 커진 액션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다음 달 17일 첫 방송.

